

“내가 진짜 잘하나? 여전히 연기 의심”

이병헌, 올해 국내 모든 영화 시상식 평정

그는 늘 빛을 냈다. 1999년 '내 마음의 풍금'으로 영화 시장에 들어온 후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상승세를 거듭했다.

연기력이 낱이 깊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더이상 증명할 게 없을 것처럼 보일 때 할리우드에서 러브콜이 이어졌다. 다시 한번 김탄의 연기를 뽑아내 등 관한 그는 올해 배우 인생의 정점을 찍었다.

더 이상 내리막은 없을 것 같은 영화 배우 이병헌(46)의 이야기.

올해 국내 모든 영화 시상식을 평정했다.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내부자들'을 비롯해 '메그니피센트' '밀정' '비스칸덕트' 등에서 대체불가의 연기로 이병헌의 독특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21일 개봉을 앞둔 영화 '마스터'(감독 조의석)도 마찬가지다.

그의 연기는 '흔잡을 데 없는 연기'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시시각각 모습을 변화하며 사기 행각을 벌이는 '진현필'을 그는 특유의 세밀한 캐릭터 조형으로 완성해냈다.

이병헌은 천상 배우다. 악한 인간을 연기할 때도 악한의 근원을 풍기는 아우라를 전한다. 한국 영화계를 넘어 할리우드에서까지 그와 함께 영화를 완성하려는 이유다.

이병헌은 어떨까. 상찬(賞讚)이 넘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연기를 의심하고 있었다. "자신을 객관화하는 불가능하기에 자꾸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영화 '마스터'를 배경으로 그의 연기철학을 들어봤다.

- 다음 주에 개봉이다. 어떤 기분인가. "어제(14일) 일반 시사회를 했는데, 반응이 좋았다고 하더라. 기분 좋게 기다리고 있다."

- 내부자들은 지난해 11월 개봉했으니 제외하더라도, 올해 출연 작품만 네 편이다.

"네 편인가." - 하지만 연기에 대한 평가는 아쉽지 않았을 것 같다. 사실 '이병헌의 연기'는 이미 아주 예전부터 인정받았던 것인데, 유독 최근 들어 연기 칭찬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나.

"기분은 좋는데, 나에게 물어본다. '내가 진짜 잘하나.' '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나를 객관적으로 보기가 힘들지 않나. 내가 연기를 엄청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깨를 짓누르는 느낌이 있다."

그 느낌이 연기에 좋게만 작용하지 않는다. 몸이 경직되고, 그러면 발바닥치는 듯한 연기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기 위해 노력한다. 내가 자유로워야 좋은 연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 이번 작품에서는 어땠나. "부담감을 떨쳤는지 나도 확실히 모르겠다. 하지만 촬영장에 가면 내 마음을 끌어내리는 느낌을 가지려고 했다. 본격적인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는 것처럼."

- '마스터' 이야기를 해보자. 첫 장면이었던 프레젠테이션 시퀀스부터 강렬했다. 분명히 시가치고 있다는 걸 아는 데, 묘하게 설득력 있다. 어떤 고민을 했나.

"관객이 느끼기에 저 정도면 속을 수도 있겠다고 믿게 하고 싶었다. 저 사람들이 비보같이 속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연기하려고 했다. 프레젠테이션 대사를 만드는 데 한 달 이상 걸렸다. 더 믿음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원래 시나리오에는 진현필이 감정을 드러내며, 눈물 흘리는 장면이 없다."

- 진현필의 정체성은 말인 것처럼 보인다. 연설 장면은 물론이고, 필리핀에서 필리핀식 영어를 구사하는 점, 상대에 따라 말투가 각각 달라지는 게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보여주는 듯했다. 그게 매력이기도 하다. 진현필의 어떤 점에 끌렸고, 어떤 걸 강조하고 싶었나.

"진현필의 매력은 배우의 속성과 일치한다. 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새로운 캐릭터를 만나고 싶어하지 않나. 늘 변화하고 싶어한다. 배우로서 그런 내 욕망이 진현필에게 있었다. 상대와 상황에 따라 순식간에 눈빛이 변하고 말투도 변하는 인물이기, 어떤 배우가 이런 역할을 마다하겠나. 어떤 때는 차갑게, 설득력있게, 잔뜩하게, 친근하게 변화하는(이 부분을 말할 때, 이병헌은 실제로 차갑거나 설득력 있거나 잔뜩하거나 친근한 표정을 각각 지어보였다) 진현필이 매력적이었나."

- 한국영화에서 악역을 맡은 게 '놈놈'들과 '마스터', 딱 두 번이다. '놈놈'의 박철이, '마스터'의 악역이 됐는지 최소한의 설명이 있었지만, '마스터'의 진현필은 밀도 끝도 없는 악역이다. 어떻게 접근했나.

"시나리오를 읽을 때는 소설처럼 죽



읽지 않나. 재밌었고, 진현필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막상 연기하려니, 내가 잘 설득이 안 되더라. 말대로 밀도 끝도 없으니까. 자칫 이 인물이 '그냥 나쁜놈'이라니, 그러니까 매우 평면적인 인물이 될 것 같았다. 아주 작은 것들인데, 이 인물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에 능한 인물로 만들려고 했다."

- 예를 들면 어떤 건가. "살인교사를 한 뒤에 뉴스를 통해 그 소식을 듣는 장면이 있지 않나. 원래는 그냥 씩 웃고 끝나는 것이었는데, 웃지 않고 '그럼 뭐 어떡하라고'라는 혼잣말을 넣었다. 죄책감을 느끼지만, 순식간에 자기 합리화를 하는 인물이었으면 했다. 다른 장면에도 이런 부분이 들어 있다. 악역에 대한 합리화 시스템이 매우 빠르게 작동한다고 생각하니, 진현필에 접근하기 용이했다."

- 올해는 아무래도 연기 인생에서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 같다. 거의 모든 시상식을 휩쓸었고, 그 어느때보다 이병헌의 연기에 대한 상찬이 많았다. '마스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는 어떤 해였나.

"행복하게 바쁘다. 이 영화 저 영화 프로모션 다니고, 이 시상식 저 시상식 상 받으며 다니고(웃음) 사실 돌아볼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인터뷰 하나, 기자들이 정리를 해준다(웃음) 상을 받으러 다닌 시간만 해도 다 합치면 한 달이 될 거다."

- 마지막 질문. '마스터'는 어떤 영화인가. "시국과 맞닿은 부분도 있지만, 어렵지 않고 경쾌하고 밝은 작품이다. 우리 영화가 위기가 됐으면 한다"

/뉴스

쇼트트랙 국제 박세영, 이상화·박승희와 '한술밥'

쇼트트랙 국가대표 박세영(사진)(23·화성시청)이 빙속 여제 이상화(27), 친누나 박승희(24·이상 스포츠토)와 '한술밥'을 먹는다.



이상화, 박승희의 매니지먼트사인 '브라운 컴퍼니'는 박세영과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2012년과 2013년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2년 연속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유망주로 주목받은 박세영은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에서도 국가대표로 활약했고, 올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종합 4위에 올랐다.

박세영은 2016~2017시즌에도 대표팀 승선에 성공했지만, 어깨 부상으로 2016~2017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1~3차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박세영은 내년 2월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을 목표로 재활에 전념하고 있다.

친누나가 소속된 매니지먼트사와 계약을 체결한 박세영은 "복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운동하고 있다. 운동 외에도 신경 쓸 부분들이 항상 많은데 매니지먼트사의 지원을 토대로 더욱 운동에 전념하겠다"며 "(박승희 누나, 이)상화 누나와도 한 식구가 돼 기쁘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두산, 마무리 이현승과 3년 27억원에 FA 계약

한국시리즈 2연패를 이룬 두산 베어스가 마무리 이현승(사진)과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체결했다.



두산은 지난 16일 좌완투수 이현승(33)과 3년간 계약금 12억원, 연봉 4억원, 인센티브 3억원 등 총액 27억원에 FA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즌 이현승은 팀의 마무리 투수로 주로 활약하며 1승 4패 25세이브 1홀드 평균자책점 4.84의 성적을 거두며 팀의 정규시즌 우승을 뒷받침했다.

한국시리즈에서는 3경기에 등판해 1승 1홀드 평균자책점 0.00을 기록하며 2연패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

계약을 체결한 이현승은 "먼저 내에 대한 가치를 인정 받은 것 같아 기쁘고, 구단에게도 감사하다"며 "고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수조를 잘 이끌어 두산베어스가 최강팀으로 계속 군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개인적으로도 내년 시즌을 잘 준비해 시즌 마지막까지 좋은 컨디션으로 마운드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근 기자

U-17 축구대표팀, 이스라엘 4개국 대회 4위

한국 U-17 축구대표팀이 이스라엘 4개국 친선대회를 4위로 마감했다.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U-17 대표팀은 지난 16일(한국시간) 이스라엘 베히올에서 열린 대회 3~4위전에서 이스라엘과 2-2로 비긴 뒤 승부차기 끝에 3-4로 패했다.

지난 13일 세르비아와의 1차전에서 0-3으로 진 U-17 대표팀은 최종 성적 4위를 기록했다.

U-17 대표팀은 전반에만 2골을 헌납했다. 후반 7분과 38분 이지솔(서울안남고)의 골로 어렵게 균형을 맞췄지만 승부차기에서 두 명의 키커가 실축하면서 고매를 마쳤다.

/김민근 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